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07.01	↓ 코스닥	1106.08
	(-15.26)		(-19.91)
↓ 금리 (국고채 3년)	3.142	↑ 환율 (원·달러)	1444.60
	(-0.012)		(+4.40)

주담대 고정금리
7% 육박
“고정형 유리”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 액션 나서는 행동주의

주총 앞둔 대기업 ‘긴장’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올해 주총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 것 같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갈수록 힘이 세지는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주총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액 주주들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들은 배당 확대에서부터 선임독립이사 제도 도입, 경영진 교체, 회사 분할까지 다양한 주주제안을 쏟아내고 있어, 올해 주총장은 이들의 표 대결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팰리서캐피탈·얼라인파트너스 등 韓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 요구 서한
행동주의 펀드 ‘단기 차익’ 노린 ‘주주 포폴리즘’ 치우칠 우려 커

◆3월 주총앞두고 주주제안 쏟아내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탈은 LG화학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전제로 기업 가치 제고계획에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공개, 경영진 보상 계획에 주식연계보상 도입, NAV 할인율 및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존 경영진 보상에 관한 핵심성과지표(KPI) 중 하나로 반영할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의 유동화 규모 확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실행,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도 요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6일 DB손해보험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 주주서한에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외형 중심이 아닌 요구자본이익률(ROR) 기반의 위험 조정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 수립, 지급여력비율(K-ICS) 구간별 요구자본 성장률 관리를 골자로 하는 중기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 고도화 등의 제안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1일에는 에이플러스에셋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및 평가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2인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안건 등을 주주제안했다.

지난 13일에는 코웨이에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후보 2인에 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하루 전인 12일에는 덴티움과 가비아, 솔루엠에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1일 KCC

(최근 5년 간 주주제안 상장기업·안건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상기업 수	26	29	47	41	43
안건 수	92	98	165	154	168

/자료=아주기업경영연구소

에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서한에는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 비핵심 자산인 삼성물산 주식의 유동화,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정책 재수립 등 4대 주주제안이 담겼다. 그러면서 KCC 이사회에 다음 달 11일까지 답변도 요구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대해서도 소수주주가 보유한 유통주식 23만 주(21.1%) 전부를 매입해 상장을 폐지할 것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선임독립이사 제도 등을 12일 요구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BNK금융지주에 사내이사(회장)와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 보상 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 사유에 대해 라이프자산운용은 “이사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올해 주총에서는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1, 2차 상법개정에 더해 이에 기댄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강화되면서다.

울촌 기업자배구조센터는 올해 주총이 “기업자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등 최근의 자본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등 공격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개정 상법 시행 일정과 제도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조 조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주주 이익 제고에 나선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차익만을 노린 ‘주주 포폴리즘’으로 치우칠 우려다. 과도한 수준의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주장하며 기업의 성장 여력을 훼손할 수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과이익(이익)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라며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일 듯하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잃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울역 도착 ‘귀경 행렬’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KTX서울역에서 고향에 다녀온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다주택 특혜 철저히회수… 책임·부담 부과”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 다주택 돈되게 만든 정치인”

설 연휴 장동혁 대표와 부동산 설전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18일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포스트에 국민의힘 장동혁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설 연휴에도 부동산 설전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

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작은 평당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테슬라 ‘K-인재 눈독’… AI 반도체 인력 유출 우려

일본 머스크 테슬라 CEO

SNS에 태극기+채용공고 공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AI 반도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은 물론 미국 기업도 한국인 인재 채용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여러 개의 태극기 이모티콘과 함께 테슬라코리아의 채용공고를 공유했다.

이는 단순히 AI 반도체를 외부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역량을 직접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머스크는 지난달 28일 테슬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공급업체의 생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3~4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

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테슬라 테라팰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큰 규모의 로직·메모리·패키징을 모두 포함하는 미국내 생산시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AI 반도체다. 이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제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역량 뿐 아니라 이를 제조할 파운드리, AI 연산장치에 데이터를 제공할 메모리 반도체, AI 연산장치와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까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정동영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네차례…9.19 합의 복원 선제 추진” /사진 뉴시스
▲“계엄극복” 시민 공로 인정 …내달 ‘빛의 위원회’ 설치

▲정희용 국힘 사무총장 “설 민심 세 단어로 정리하면 민생·심판·혁신”
▲홍준표, 배현진 겨냥 “소정의 절차” 뜻도 모르는데 …무지해”

▲조국혁신당 “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제안…민주당, ‘연대’ 입장 정리하라”
▲민주·조국혁신당, ‘선거연대’ 논의 순탄할까…양당 온도차 보여